

國家論의 概要

鮮于

第一章 國家와 社會(卽人間)의 差異

國家를 論述코져 함에 當호야 國家와 社會의 差異를 知치 安이치 못홀지라. 故로 茲에 區別 說明호노니

第一. 國家는 主權을 要호되 社會는 主權을 不要함이라. 國家가 存在함에 主權을 必要로 호노니 主權은 卽 國家의 存立을 證明호는 者}라. 故로 主權이 無호면 國家는 卽 時로 土崩瓦解에 歸홀지라. 然이느 社會는 此와 反호 者}니 社會 成立에는 主權이 要素가 安이라 故로 彼草를 衣호고 木實을 食호든 鴻蒙의 時代에는 君長이 不存호고 政紀가 頓無호야 人民이 天然 狀態에 歸호야슬 時에는 決코 此를 國家라 稱호기 不能호는 社會라고는 稱치 安이치 못홀지라. 然이느 此 說中에도 個別호 者}有호니

(一) 國家에는 政府가 有함을 要호되 社會에는 是와 反호 者}라. 蓋人類 社會에는 政治的에 組織만 安이오, 血族的 組織, 宗教的 組織, 經濟的 組織 其他 千態 萬像의 特別目的에 依호야 組織된 者}多호는 茲에 枚舉키 不能호 故로 省略호고 但上例만 數言코져 호노니 (一)血族的 組織, 此組織은 家族又는 親族으로 組織된 者를 云함이오, (二)宗教的 組織, 此組織은 寺院又는 教會로 組織된 者를 云함이오, (三)經濟的 組織, 此組織은 都府, 村落又는 社會, 組合 等 組織을 云호 者}라. 是等の 組織 上에 全體의 平和 秩序를 維持키 爲호야 各階級 又는 各個人의 爭議를 公共的으로 裁決호며 又其裁決을 公共勢力으로 厲行케 함을 可得호 確定의 機關 卽 政府를 有호 者를 國家라 稱호고

(二) 國家는 自然에 放任함을 不許호되 社會는 是와 反호 者}라. 社會는 自然 成立된 者}인 故로 優勝劣敗의 狀態를 未免호는 國家는 自然 成立된 者}안인 故로 優勝劣敗의 慘狀을 調和호고 個人의 安寧 幸福을 保護코져 目的 호는 者}라.

(三) 國家는 不自由로 原則이라 호는 社會는 是와 反호 者}라. 社會는 男女, 賢愚, 強弱 等 幾多의 階級이 有호는 國家에는 各個의 利益을 目的지 安

이하고 共通의 利益을 計圖하는 故로 個人은 平等이라 하는니 此 自由와 不自由로 出은 所以라.

以上 一二三說을 相異케 하여 論은 學者가 多하는 然이는 此皆統治權下에 在하여 其 權力에 服從하는 同時에 自然, 自由의 消滅은 論을 不俟하고 了解할 者]오, 政府는 主權의 機關으로 國家를 組織함에 可缺지 못할 者]라. 故로 予는 皆主權을 主張하는 說에 算入하노라.

第二. 國家에는 人格이 有하되 社會에는 人格이 無함이다. 國家를 抽象的으로 觀察하면 主權의 主體되는 一種 法人이니 卽 國家는 靈識을 具有한 人格者오, 社會는 法理 上 決코 人格을 保有치 못할 者]라 此說의 詳은 後日 國家 人格論에 讓함

第三. 國家에는 一定 區域이 有함을 要하되 社會에는 一定한 區域이 無함이다. 國家를 實質的으로 檢察하면 一定한 土地 上에 存在한 人民을 主權으로 統治할 政治的 團體를 云함이니 卽 太古의 時에 水草를 逐하여 轉移無常하는 人民은 社會라 稱함은 可하는 決코 國家라 稱함은 不可하니 中古에 民族主義를 採用한 事도 有하는 然이는 今此新進한 二十世紀 領土主義를 採用함을 當하여야는 不可不區域이 最大한 要件이라 하노라.

第二章 國家와 人民의 關係

大凡吾人이 此複雜한 世에 生하여 此에 家하고 此에 生命, 財産, 名譽의 安全을 得하는 幸福은 世界의 賚與한 바 안이오, 直接으로 保護를 與하는 國家의 恩이라. 例令甲某가 予를 歐打하여 負傷하였다 하면 或他로 此를 報할 道가 無하면 予腕力에 訴하여 此를 復讎하고 又乙某가 予의 書籍을 借하고 返還치 안이하는 境遇에 他로 乙某로부터 返還케 할 力이 無하면 予腕力에 訴할지니 若如此하면 遂히 爭亂이 起하여 互相 攻擊 防禦함을 免치 못하여 安寧秩序를 維持할 道가 無할지로 다 故로 國家라 하는 者]其 間에 權力으로 在하여 予로부터 復讎의 手段을 不講케하고 予로부터 腕力의 悖戾를 不許하고 予를 伐하여 加害者]를 處罰하여 予의 怨을 解하고 借用物을 返還케 하여 予의 權利를 完全함을 得케하고 他的 義務를 履行함을 命하는니 此 卽 國家라 然則國家가 何物이며 吾人이 國家와 如何한 關係로 由來함을 不可 不研究할 者라 하노라.

第三章 國家의 起源

國家는 何故로 起하였는가. 其起源 如何의 問題는 從來로 學者間에 論爭이 頗多하여야는 卽 國家 起源論에 就하여야는 定論이 無하나 然이는 國家가 今日 有樣을 呈함에 當하여 不可不 其 發達한 起源이 無치 못할지라. 故로 其 起源 如何에 就하여 論함에 論理 上 起源과 實際 上 起源이 是라.

今便宜하기 爲어야 二者를 分析하여 說明할진디

第一. 論理上 起源 此論理上 起源에 對하여는 二大學派가 有하니 卽 國家의 創設은 自然的으로 成하였다 함과 人意的으로 出하였다 하는 者라.

(一)自然 創立說 此說은 國家創設은 自然 作用의 意義를 總稱함이니 此派에 屬한 者多하니 今其 重要한 者二三을 舉하여 此說에 重要된 者만 明히 할 뿐이라. (一) 神學派에 屬한 者, 國家는 神意에 起하여 自然히 創設된 者라 하고 (二) 強力說을 採用하는 者, 古代 強弱 優劣이 盛한 時에 强者優 者가 弱者劣者를 壓服하여 治者被治者의 關係가 生하는 同時에 國家가 創設된 者인 故로 國家에 強力은 不可缺이라 하며 (三) 人性說을 採用하는 者, 蓋人類는 元來社交的 動物이라. 空山荒野에 離群絕俗치 안이하고 共同生活을 營爲하여 其 機關을 排設하는 同時에 國家가 自然創立되었다 하니 其 主張한 바는 相異하니 其歸着하는 바 自然은 同한지라.

(二) 人意 創立說 此說은 前說와 相反하여 國家는 自然히 創立된 者아니 오, 반당히 人의 意思에 基한 者라 此說中에도 亦小別이 有하니 其 重要한 者一二만 舉하여 此說을 詳케 하니 (一) 民約論에 屬한 者라 此說은 佛國 碩學 「루-소」 氏의 唱道한 바니 凡社會의 成立은 吾人 約束에 基한 者니 各人이 群居하면 弱肉強食의 自然狀態를 免치 못할지로다. 故로 各人의 意思를 暗約하여 我의 權利를 保護하기 爲하여 社會를 組織하고 此에 發達 進歩에 當하여 此權利의 主體되는 國家를 組成하였다 하고 (二) 自由意思에 屬한 者니 此說은 人의 意思行爲는 元來自由로 原則이라. 故로 此自由로 因하여 國家를 創設하고 其權力에 服從함에 至하였다 하니 以上數說이 皆自然에 歸着함과 如하니 野外에 草木의 發生과 如히 自然한 者 안이오, 一人類의 意思로 發生한 者라 하니라.

以上에 說明한 者는 論理上의 起源이라. 然이느 此亦未盡하다 하니 何故오 人類는 結社性만 有하여 互相結合만한다 하면 如斯히 國家로 組織이 되어 此全球 上에 甲國 乙國이 門戶를 各立하여 優勝劣敗와 弱肉強食의 天然狀態를 免치 못하니 此에 由하여 觀하면 人類의 本性은 社交性和 排斥性이 有하여 同類相集하고 異類相排함이 恰然히 物質에 分子의 吸引力과 抗拒力이 有함으로 物質을 組成함과 如히 人類의 抗拒力과 吸引力이 有함을 例言하면 吾人의 共知하는 바 北米合衆國의 獨立戰爭과 如함이 是라. 故로 團結한 共同唯一의 權力에 服從하며 保護下에 安全의 生存을 求함으로 所謂 權力 團體가 生하고 變遷을 隨하여 近世의 國家를 組成함에 至하였다 함으로 信하니라.